



##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원전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학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원전수출 국민행동’(이하 ‘원국행’)은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원전 수출 국민 운동에 나섰다. 원국행은 기자회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한국 원자력발전의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힘을 합쳐 합심하여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 연간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에 원전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호소했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은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적 조직의 출발을 기념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세계로 원전 수출 하나로 국민 통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이 싹트는 새봄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으나, 우리 국민은 평창에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던 종목에서도 메달을 따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자체 선거와 개헌으로 돌아오르고, 적폐청산에 미투(Me Too) 운동이 맞물려 오랜 관행과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핵 버튼 운운하며 ‘분노와 화염’으로 치달던 미국과 북한 간에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한쪽에는 아직도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년실업, 빈부격차, 하우스푸어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

니다. 저출산, 가계부채 같은 고질적 숙제 또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거시지표는 양호하지만, 기업과 가계에 켜진 빨간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구가하던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빨리 현재의 위기를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전자통신 등 ICT산업 이후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희망의 불꽃을 되살릴 신수출산업 발굴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신수출 챔피언은 에너지산업입니다.

석탄·석유·가스로 구성된 기존 에너지산업은 기후 변화 △미세먼지 △자원 고갈 △고비용이라는 사면



원전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학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원전수출 국민행동'은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원전 수출 국민 운동에 나섰다.

초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러시아·중동 등 모든 자원대국들이 지속가능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면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원전 수출입니다. 여와야,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온 국민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원전 수출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 아래 우리는 원전 수출을 행동으로 지원하는 '원전수출 국민행동 추진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원전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학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전수출 국민행동'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범국민적 조직의 출발을 기념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광화문은 5천만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전 수출을 촉구하고 지원을 다짐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산업은 2009년 이미 연간 매출 1경 5천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부동산 가격의 4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에너지시장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에너지 빈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 기술력은 이러한 악조건을 능히 극복하고, 벌써 오래 전에

‘미래 에너지’라 불리는 원자력 발전을 국산화했습니다. 가격과 품질 모두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우뚝 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1%만 점유한다면, 대한민국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새로운 옥동자가 탄생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 연간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에 원전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영국·체코 등에 새롭게 열린 원전 시장 개척을 위하여 이달부터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는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동메달도 있습니다만, 원전시장은 금메달 한 가지만 빛이 나는 가혹한 전쟁터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지원하여 원전 시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전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애국산업입니다. 지금도 700여 기업이 연간 25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3만5천 명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 21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백만 명에 이르니, 이미 엄청난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는 효자 산업입니다.

우리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1%를 점유하는 날, 원전 산업의 일자리는 6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고급 인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원자력은 두뇌에서 캐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에도

절묘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목적 카드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우리 원전을 북한에 착공한 역사적 사건을 상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원전 수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겨루는 원전 올림픽에서 내부의 갈등이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지속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구 환경 보호가 시대적 당위라면, 원전과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업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수출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에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편견을 버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원전 수출에 국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원전 수출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구 환경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달러가 부족하여 국가가 굴욕을 겪고,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금 모으기 하던 자세로 우리가 먼저 대장정에 나서겠습니다. 아기 돌반지까지 내놓던 심정으로 온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원전 수출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고, 원전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간곡한 뜻이 담긴 ‘원전수출 국민행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앙망합니다.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여야·보혁·세대 간의 간극을 치유하는 국민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

2018년 3월 20일

원전수출 국민행동 추진본부 본부장 황일순